

보도 일시	2022. 3. 2.(수) 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3. 2.(수)
담당 부서	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	책임자	과 장 전해선 (02-2110-1530)
		담당자	사무관 신동재 (02-2110-1531)

## 원스토어에서 받은 앱, ‘안드로이드 오토’ 호환된다

- 구글-원스토어, 호환 문제 해결을 위한 계약 체결 -
- 방통위, “사업자 자율 개선 노력을 통한 상생” 강조 -

◆ 국민 불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!

앞으로는 원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앱도 안드로이드 오토\* 서비스를 통해 차량 내 디스플레이에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해진다. 원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한 이용자가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앱을 구글 플레이에서 다시 다운로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 것이다.

\* 안드로이드 오토 : 차량에 내장된 디스플레이에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내 앱 (내비게이션, 음악 스트리밍 등)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구글의 서비스

### < 안드로이드 오토 서비스 개요 및 개선사항 >

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한상혁, 이하 방통위)는 최근 구글과 원스토어가 안드로이드 오토의 호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이번 계약으로, 구글이 제시한 안드로이드 오토용 앱의 품질 기준에 따라 원스토어가 검증한 후 배포한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와 연동이 가능하다.

원스토어는 오는 3월 4일부터 원스토어 상의 모든 안드로이드 오토용 앱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.

그동안 방통위는 타사 앱 마켓을 통해 배포되는 앱은 안전성 등의 이유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호환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지난 해 5월부터 실태점검을 진행하는 한편, 앱 마켓사업자 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구글과 원스토어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.

한상혁 위원장은 “앞으로도 앱 마켓 전반을 지속적으로 살펴,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, 사업자 간 협의 등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통한 문제 해결도 적극 독려하여 구성원 모두가 상생하는 앱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” 고 밝혔다. 끝.

